

주임신부	탁현상 보나벤투라 2696-8111	 천주교 신월동 성당 (성 요셉 성당) (우) 079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길 20 (신월동)	주일미사	토 15:00(어린이), 18:00(일반)
보좌 신부	지형규 요한 2697-8111		일 07:00(일반), 09:00(일반), 10:00(청소년) 11:00(교중), 18:00(청년)	
수녀원	신 발바라 2690-7111 정 마리 로사		평일미사	06:00 - 수, 목, 금 10:00 -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19:30 - 화 19:30 - 첫째 목 성시간 : 미사 후
사무실	2696-6111, 2690-2114		고해성사	매 미사 전
F A X	2607-5681		유아세례	매월 첫째주 토요일 16:00
연령회	010-5897-7031		혼인면담	매월 마지막 토요일 16:00
홈페이지	www.sinwol.or.kr			

◆ 5월 성모의 밤 행사

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의 삶과 신앙을 묵상하고 본받도록 합니다.

일시 : 5월 13일(토) 저녁 6시 미사 후 대성전
 단체 꽃봉헌 : 단체 개별로 화분으로 준비하여 봉헌
 개인 꽃봉헌 : 로비에서 판매

◆ 청소년 주일미사 (매월 첫째주일은 가족과 함께)

매월 첫째 주일 10시 중.고등부 청소년 미사는 가족과 함께 합니다.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◆ 유아세례

유아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.

◆ 초등부/중.고등부 자모회 물품판매

중.고등부 자모회 - 참기름, 들기름 등 (격주판매)
 초등부 자모회 - 자판기 운영
 * 판매 수익금은 주일학교 학생들의 간식비, 행사비 등에 사용됩니다.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.

◆ 성요셉 성가대 단원모집

(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- 마태오 21:3)
 아름다운 성가를 주님께 함께 봉헌하고 찬양하실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.
 대상 : 본당 전신자
 연습시간 : 매주 목요일 저녁 8시/ 1층 요한방
 담당전례 : 주일교중미사, 대축일미사, 혼배미사 등
 문의 : 010-5689-5782
 성가는 주님께 바치는 정성스런 기도입니다.

◆ 하늘.땅.물.벗 회원 모집

아픈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히 살 수 있을까요? 모든 자연을 벗으로서 아끼고 돌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환경사목위원회 하늘.땅.물.벗으로 모집합니다.
 문의 : 010-2550-6043

◆ 2023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부율 (4/30 현재)

전체세대수	책정세대	책정율	납부율
2,175명	726세대	33.38%	31.22%

◆ 교무금 책정 및 납부

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교무금 납부를 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아직 정리를 못 해주신 분들은 신자로서의 의무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
◆ 성령기도회 <매주 목 19:30 / 지하소성전>

5/11	최순자 폴리나	5/18	김현조 스테파노
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

◆ 단체모임

가난Cu.월례회의	5월 9일(화) 20:00	소성전
겸손Cu.월례회의	5월 10일(수) 20:00	소성전

◆ 전입교우 환영합니다.

10-3	이봉우 안드레아	25-2	김채민 로사리아
4-5	오경환 헨리꼬	1-2	이남진 엘리야
28-1	양성근 베드로	1-2	김영무 마태오
10-1	이나영 프란치스까	10-1	장원일 가밀로
28-2	조미라에디트슈타인	**	***

◆ 장학기금 및 성소후원금 현황 (5/2일 현재)

장학기금 총액 : 76,222,179
 성소후원금 총액 : 17,574,817

◆ 지난주 정성 (4/24~ 4/30) * 감사합니다. *

교무금 5,805,000	건축헌금1,350,000
주일헌금 4,419,300	사무실 봉헌금 1,000
성소주일2차헌금 2,087,600	
감사헌금.....신석범베드로 상가(30만원),익명(10만원) 익명(10만원), 박서운(10만원), 박생년(2만원) 양기분(3만원), 조근희(5만원), 더그레이트쇼(11만원)	
미사인원 962명	
교무금 은행 납입 계좌 : 우리은행 1006-400-144224 (재)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*은행 입금하실 경우 필히 교무금 통장 명의로 납입하여 주십시오.	

부활
제5주일
화답송



주님,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.